**제3차 실무위원회**

* **개요**

|  |  |
| --- | --- |
| 기간 | 2001-08-27 ~ 2001-08-30 |
| 장소 | 일본국 > 효고현, 현립 아와지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 |
| 주관 | 일본국 > 효고현 |
| 참가 | 5개국 23개 자치단체 55명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
| 일본국 |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몽골국 | 투브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

* **내용**

|  |  |
| --- | --- |
| ▷ 회의개최경비의 일부 분담방안 협의▷ 연합에 의한 사업인정ㆍ후원제도 창설 문제 논의▷ 상설사무국설치 등 사무국 체제 개편 협의

|  |
| --- |
| **▷ 2002년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

 |

* **합의문**

2001년 8월 28일 일본 효고현 아와지 꿈무대국제회의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고, 대한민국 및 러시아 연방 자치단체의 실무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3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조직으로서 설립되어 이제 5년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치단체간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시키면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더욱 활동의 충실을 기하며 동북아지역에서의 공통의 과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제 3회 실무위원회에서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 2000>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한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함과 동시에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2002년 하바로프스크 총회의 개최개요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여기 참석 자치단체간에서 합의를 얻은 사항 및 보고내용의 의장총괄로 정리한다.

1. 분과위원회 보고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이 활동보고가 이루어졌다.

(1) 경제ㆍ통상분과위원회

1998년 및 1999년에 개최된 2회의 동북아시아비즈니스촉진회의 개최상황에 추가하여, 제3회 동북아시아비즈니스촉진회의를 2002년 4월 경상북도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전자무역추진을 위한 정보센터의 구축과 연합회원간의 통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글로벌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보고되었다.

(2) 문화교류분과위원회

2001년 11월에 제1회 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제안 등 의견을 모으면서 문화교류분야의 공동사업의 실시에 대해 검토해 가는 것이 보고되었다.

(3) 환경분과위원회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에 관하여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상황에 이어, 2001년 7월 12일의 제3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2000년의 개별프로젝트의 실시결과가 보고됨과 함께 2001년 개별프로젝트의 제안과 실시상황에 대해서 협의했다.

(4) 방재분과위원회

회원자치단체의 방재체제, 시책등의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효고현이 실시한「재해대책 국제종합검증사업」의 보고서를 전 회원자치단체에 송부한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향후 효고현의 고베 동부 신도심에서 2002년 봄에 오픈할 예정인 한신 · 아와지 대지진메모리얼센터(가칭)와 아시아 방재센터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5) 일반교류분과위원회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개최상황에 이어, 2001년 7월 12일에 개최된 제3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교류를 지탱할 인재육성사업으로서「NEAR인재육성 액션프로그램」이 합의됨과 동시에 금년 10월 27일~29일에 토야마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여성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 및 조사연구기관의 연계강화에 대해서 합의 되었다.

2. 회의개최경비의 일부분담제에 대해서

회의개최경비의 부분적인 분담제를 실현함으로써 각국 각 자치단체에서의 회의개회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향후 연합의 재정기반강화 및 ?U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개최경비 일부를 회의참가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여 차기총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3.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의 인정에 대해서

국제박람회 등 사업화촉진과 개최자치단체의 성공 및 역내외의 교류촉진을 기하며 공동의 과제해결이라는 연합의 목적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합회원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인정제도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차기총회에서 협의하가로 했다.

4. 개별사업에 대한 연합의 후원에 대해서

동북아지역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합회원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연합이 후원하는 제도창설에 대해서 합의하고 「후원명의 사용승인에 관한 요강」을 제정했다.

5. 상설사무국 설치 등 사무국에 대해서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 체제에 대해서 협의를하여, 국제조직으로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협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및 일본국 토야마현으로부터 회비제가 도입될 때까지 경비부담을 전제로 상설사무국 설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

또한 사무국의 기능 등 설치형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토야마, 하바로프스크지방, 효고현이 더 검토·조정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 9월 하바로프스크 총회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6.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회총회에 대해서

2002년에 러시아 연방 하바로프스크 지방에서 열리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회 총회의 일정, 장소 등 개최개요를 하바로프스크지방이 보고했다.